

병풍 같은 산에 매화나무 심어 꽃천지를

청매실농원 홍상리 선생 (하)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일이다. 광양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청매실농원에 가실 테니 헬기 앉을 자리를 만들라고 했다. 홍상리 선생(70)은 전시관 앞 비탈에 흙과 돌을 트럭 3700대 분이나 부어 매웠다. 지금 장독대 자리다.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법정 스님이 오셨다. 스님은 “잘 했다. 이제 턱이 있어 됐다”며 “돈 많이 들었지? 빚 많이 졌지? 그래도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고 했다.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선생 말에 “그땐 보살이 빚에 깔려 죽을 판인데 그 소리를 어찌하겠나”고 말했다. 그때 전시장 올라가는 왼쪽 축대도 새로 쌓았다. 스님은 축대 위에도 향아리를 한 줄로 나란히 놓으라고 일렀다. “그 뒤에 웬 스님이 한 분 오셔서 누가 저렇게 향아리를 일자로 놓으라고 했느냐고 물어요. ‘법정 스님이요.’ 그랬더니 무릎을 치는 기라. 햇빛나면 향아리가 얼마나 번쩍거립니까? 그 스님이 용비늘이 번쩍거린다고 하더군요.”

법정 스님은 섬진강 건너 산을 가리키면서 저 앞 산을 보라. 수능 학교 이 뒷산은 암능 학이다. 암컷이 부화하려고 알을 품고 앉았는데 수컷이 섬진강 먹이를 끝없이 몰아다 준다. 그러니 이곳에 짐승 2층보다 더 울리지는 마라. 3층 높이를 지어버리면 알이 부화가 되지 않고 썩는다고 말했다. “평생 잊지 않는 기라에.”

장독대 아래 집을 짓는데 집 골조가 장독대보다 더 올라왔다. 마침 그때 법정 스님이 오셨다. 차를 대어 놓고는 건물 골조가 솟아 있는 걸 보시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도로 차에 오르셨다. 느닷없는 스님 모습에 당황한 선생이 쫓아가서 차 문고리를 잡으며 다급하게 외쳤다. “스님! 왜? 허니까. 내리시더니 아따, 눈에 불이 번쩍이시면서 ‘저 건물 누가 지으래!’ 아이고, 너무너무 화를 내세요. ‘생각 해봐라. 코앞에 키 큰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그러지 않았나, 지어도 2층이 넘게는 짓지 말라고. 어찌자고 저렇게 큰 건물을...’ 스님이 말을 잊지 못하셔. 그걸 뜯어내는데 5000만원도 더 들었어요. 그나마 지붕도 안 덮고 뼈대만 세워놨을 때니까 망정이지. 뒤에 오셔서 ‘이제 됐다’ 그러시더라고. 스님은 좋은 말씀을 하셔도 부드러운 인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시니까 무섭데.”

임권택 감독이 100번 씩 영화, <천년학>을 청매실농원에서 찍으려고 하니 초가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초가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스님 좀 봐주시지요? 말씀드렸더니 언 산을 두루 둘러보시고는 ‘보살, 여기 용이 여의주를 물러고 입을 벌리고 있네. 이게 용궁이고, 여기가 용배고, 용꼬리니까 이곳에 집을 앉히면 누가 와서 하룻밤 자더라도 몸과 마음이 편할 것이다’고 하셔서 그대로 집을 앉혔

지요.”

“친정아버지가 나를 국문학과를 보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워하다가도 내를 공부시키지 않아서 다행이다. 공부를 시켰더라면 흠을 일구는 농사꾼이 되지 못했을 테고, ‘밥상이 약상’이라는 걸 몰랐을 텐데요.” 농사는 작품이지 돈이 아니라며, 농부라서 행복하다는 홍상리 선생(70). 한 해 김장을 배추 5000포기나 담는다. “우리는 1500포기쯤 먹고 나머지는 장애자들, 엄마·아버지 없는 아이들, 자식 없는 노인네들과 나누지요. 김장할 때보다 배추 가꿀 때가 더 힘들어요. 배추 포기 안은 파란 벌겍이가 먹고 바깥은 달팽이가 먹어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팽이한테 ‘달팽아 맛있냐? 니도 먹고 나도 먹자. 니가 조금만 먹는다면 잡지 않을 게. 나는 식구가 많으니까. 이 어미 힘이 들어’ 그러지요. 나눠먹어야지요. 벌겍이가 먹지 않으면 사람도 먹어선 안 돼요.” 가꾼다는 말은 본디 몸을 매만지거나 꾸민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채소나 곡식이 가꾼다. 땅을 갈구는 데부터 정성을 쏟아 마치 아이를 쓰다듬고 어르듯 한다. 개화기 기독교 선교사 계열은 우리 발농사를 가리켜 ‘농사가 아니라 원예園藝’라고 했다.

“요새 웰빙이니 친환경농업이니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옛날 우리조상님들이 짓던 농사나 음식이 가장 좋아요. 길은 새로 난 고속도로가 좋지만, 농사를 짓든 먹든 거꾸로 가라. 먹던 대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전쟁에서 2등하면 나라가 없는데, 농사라도 왜 2등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땅 살리고 풀 살리고 사람 살리는, ‘밥상을 약상’으로 만들 것인가, 땅 죽이고 풀 죽이고 사람 죽이는, ‘환자 상’을 만들

암컷 학이 부화하려고 알을 품고 앉았는데 수컷이 섬진강 먹이를 끝없이 몰아다 준다

것인가. 많이 아프다보니가 그게 화두였어요.” 선생은 29살 때 자궁내막염으로 수술을 두 번이나 했다. 또, 류머티즘으로 밤을 떠먹지 못하고 머리로 감지 못했고 목욕도 할 수 없었다. 팔과 다리 허리를 구부릴 수 없어서. 건디다 못해 자연농법 호시로 <집 한 오라기의 혁명>을 펴낸 후쿠오카 마사노부를 찾아가 ‘흙이 밝이고 매실이 벅속 청소기’란 걸 깨우쳤다. 온전히 우리조상님들이 짓는 농사법대로 가야겠다 하고 마음먹은 선생은, 3만 평에 예수 종이 넘는 야생화를 모두 먹을거리로만 심었다. 산에서 일하다 내려오면서 이것저것 뜯어 그냥 나물도 해먹고, 데쳐도 먹고, 걸절이도 해먹고, 매실된장에 싸도 싸먹



청매실농원 홍상리 선생은 <집 한 오라기의 혁명>을 펴낸 후쿠오카 마사노부를 찾아 ‘흙이 밝이고 매실이 벅속 청소기’라는 걸 깨우친 뒤, 3만평에 60종이 넘는 먹을거리를 심었다.

곤 했다. “류머티즘은 낫지 않는다고들 해요. 그런데 속똥하고 매실 농축액으로 싸 나왔어요. 맵고·짜고·시고·뽕고·쓴 오미오색이 다 담긴. 산에 난 풀이란 풀이파리들을 다 뜯어다가 채로 썰고, 10가지가 넘는 곡식 가루 세 숟가락, 매실원액 세 숟가락을 10년 묵은 간장으로 간을 하고 찹게는 볶아서 빵은 길 뿌려서 김에다 싸먹었어요. 국을 먹어야할 때는 다시 마 무 표고버섯 두부나 콩나물을 넣고 된장에 멸치는 넣지 않고 끓여 먹었어요. 속똥을 뜯 때 멸치를 먹고 쓰니가 가려워서 끊임없이 굶어대니 피도 나고 못 견디겠더군요. 그때 멸치도 단백질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가장 좋은 게 미역이예요. 미역은 10년 묵은 간장에 참기름 조금 넣고 자갈자갈 볶아놓으면 기름이 안 뜨고 뽕얇게 돼요.” 석 달 열흘씩, 세 해 동안 다섯 번 단식을 하고 나니 73kg이 나가던 몸무게가 53kg이 되었다. 그전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 얼굴이 돌 셋으로 겹쳐 어른어른해서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뒤로 질순을 앞둔 이제까지 안경 쓰지 않고도 저녁에 신문도 잘 본다.

농사를 짓든 먹든 거꾸로 가라. 땅 살리고 풀 살리고 사람 살리는, 밥상을 약상으로 만들어야

스님이 편찮다는 소식을 들은 선생은 강원도로 제주도로 반찬을 해서 보내고, 허파에 좋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서 보내드렸다. “폐에 좋다는 뿌리, 잎, 꽃잎, 열매를 두루 고아 조정을 만들고 반찬은 일고여덟 가지를 했어요. 폐에 수수가 좋거든요. 그래서 수수조청도 만들어서 함께 보냈어요. 그걸 받으시고는 하루는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날이 따뜻해지면 초가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불일암으로 가마. 누가 이렇게 늘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꾸준히 보내줬나. 보살 편지를 받아두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하시며 고맙다고.”

법정 스님은 치료를 받으러 미국 병원에 다녀오시고 나서, 선생에게 길상사에 한번 다녀가라고 했다. “팔내미하고 같이 갔는데, 행지실 문을 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앉아서 들어갈 틈도 없더라고요. 열고 들어가니까, 스님이 그 면에서 왔네. 그러시면서 사람들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가운데로 오라게요. 옆에 가서 앉으니까 스님이 차를 따라 주면서 ‘보살, 이 떡 맛있어’ 그러시곤 내 손을 덥석 쥐고 치켜드는 거라. 그 많은 이들 앞에서, 이 보살님 손 한번 보라고. ‘내가 한 마디 하면 돌, 셋을 하는 보살님이나 내가 뭐라고도 많이 했지만, 그 말을 믿고 이제까지 신통하게 잘 해왔다. 다른데 가서 똑같이 시켜도 잘 따르지 않더라. 이 손 좀 보라’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한 번씩 다가봐라. 어찌 해놓고 사는지를.’ 민망해서 혼났어요. 너무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모두 어떤 부모가 저렇게 말해주셨느냐고 그러더군요. 비행기 시간이 다되어서 가겠다고 일어나니까, 스님이 사리 문밖까지 나오셔서 조심히 가리면서 손을 짚으셨어요.”

불기 2556년 4345년 2012년

백초스님의 핵심래정택일지

壬辰年 임진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 매일 운세 보는 법 공개!!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훑어볼수 있는 래정미법!

壬辰年 핵심래정택일지 (포켓용)

4×6배판 / 칼라제본 / 456쪽 / 정가 20,000원
문고판 (포켓용) / 칼라제본 / 456쪽 / 정가 10,000원

著者 白超 백초스님

임금 023-02-500940
계좌 예금주: 임현주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극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미안마

◇ 미안마 성지순례 출발 : 2월 7일, 2월 23일

◇ 미안마 원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혜호 7일 1,92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 3월 출발

◇ 양곤 바간 혜호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 바간 혜호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 인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장사 장가계 원가계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안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생전의 법정 스님은 흥성리 선생으로 하여금 지금의 청매실농원을 이루기까지 많은 조언을 했다. 스님은 흥성리 선생을 "내가 한마디하면 둘, 셋을 하는 보살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선생도 스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게 있다고 아쉬워한다. 스님이 오시면 늘 앉아 선전강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곳이 있었다. 어느 날 스님은 여기에 자그마한 암자를 하나 지어서 기도를 하면 보살님 몸과 마음이 편안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내가 너 무 좁아서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기도할 건데 좁으면 어떡해.' 그러셨어요. 벌써 한 20년 됐어요. 터만 다듬어 놓은 채로 아직 그대 있어요."

스님 하필이면 이 봄날에 가셨습니까 이 봄날에 가셨습니까 매화꽃이 스님을 얼마나 기다리는데 부디 저 세상에서 건강하...

라! 하동이 돈 벌까?" 그랬단다. 3월 매화 축제를 하게 되면 청매실농원에 와서 꽃을 보고 즐기지만, 먹고 자는 일은 하동에서 다 한다는 얘기를 빗대서 한 말이다. 하동뿐 아니라 청매실농원이 있는 다압면은 물론이고, 머지않은 구례까지 매화 덕을 톡톡히 본다. "다른 축제는 10일이나 길어야 14일쯤 하는데 여기는 30일이거든요. 꽃이 낫는데서 피기 시작해서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피니까요. 하동 사람들 한 해 소득이 매화꽃 축제 때가 으뜸이라니까, 자고 일어나면 청매실농원 쪽으로 절 한 자리하고 아침밥을 짓는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 다압면 사람들은 온갖 잡곡이나 말려놓은 채소들을 우리 집 앞에 와서 다 팔아요. 논 전 평 농사짓는 것보다 여기 와서 한 달 파는 소득이 더 많다고 해요. 다 같이 살아야 하나니까, 다른 곳에서 온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경호원들을 삼교대를 시켜요. 잡상인이 밤중에 들어올지 새벽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청매실농원은 농원이 아니라 공원이자 법정 스님은 병풍 같은 산에 매화나무를 심어 마을 사람들은 살림이 넉넉해지고, 메마른 도시 사람들에게 안식을 찾게 하는 '꽃천지 마스터플랜'을 세우시고 흥성리 선생은 그 꿈을 실현했다.

스님 하필이면 이 봄날에 가셨습니까? 매화가 피는, 매화꽃이 스님을 보고 싶어 어찌 살라고, 봄이 오면 매화꽃이 스님을 얼마나 기다리는데... 하안 매화꽃 저고리, 스님이 앉아 계시던 파란 보리치마... 지금도 보릿잎이 스님 온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스님, 부디 저 세상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히 글 많이 쓰십시오.

아름다운 농사꾼이 올립니다. 엄마 품처럼 푸근히 보듬어 주는 고향 같은 농민이고 싶다는 흥성리 선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도종환 시인이 쓴 '꽃잎 인연'이 떠올랐다. 법정 스님과 흥성리 선생, 두 어른이 일군 천국을 누리는 모든 이들이 꽃잎 인연이기에.

몸끝을 스치고 간 이는 맺이었을까 마음을 흔들고 간 이는 맺이었을까... 가지 끝에 모여와 주는 오늘 저 수천 개 꽃잎도 때가 되면 비오고 바람 불어 속절없이 흩어지리...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고 헤어지는 일도 빗발과 꽃나무를 만나고 헤어지는 일과 같으리.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아직 여기에 있는가

강보에 싸여 나비잠을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편안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누구나 그 시절이 있었건만 인간은 왜 누가 알아가지 않은 그 편안함을 잃었을까. 우리가 정작 아쉽고 그리운 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진한 향수가 아닐까 한다.

거리에 있다 보면 분주히 걷고 있는 행인을 본다. 그들에게서 편안함이나 여유란 별반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에 홀린 듯 마냥 앞으로만 달려간다. 앞은 오직 서성거림이 주관하는 세계다. 앞은 경쟁이 치열한 세계이기도 하다. 반면에 뒤는 여유가 있고, 느긋하게 관조할 수 있는 세계이기도 하다. 우리는 왜 앞에만 길들여져 있고 그 좋은 뒤는 낯설고 패자의 세계라고 치부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항상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은 결인의 동남주머니 마냥 허기를 채우기가 힘들어 진다.

경이로움은 생성과 소멸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이로움은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주변의 일상생활에서나 혹은 자신에게서 쉽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누구나 매일 사용하고 있는 비누를 보자. 사용하다 보면 많은 비눗방울이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진다. 비눗방울의 생성과 소멸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 상황을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웃집에 아이가 탄 생했다'던가 '열심히 노력해 신분상승을 했다'는 사실도 경이로움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나와는 별반 관계없는 일인 양 지나치고 만다.

육신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경험도 빼놓을 수 없다. 노화라는 것이다. 노화는 사념(思念)의 대상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것이다. 어제의 검은 머리가 반백으로 반백에서 백발이 되어가는 현상은 분명 기적임에 틀림없다. 보폭을 넓혀도 민첩했던 걸음걸이가 세월의 무게에 눌려 지팡이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허벅거리고 마는 것도 경이로움이다. 이러한 현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순응이란 이러한 현상을 받아들이는데 합당한 말이 아닐까 한다.

농부는 장마에 대비해 논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편비내를 서두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방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부의 유혹이 엄습해도 방어할 태세를 갖추려 하지도 않는다. 임시변통으로 순간순간을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임제 선사에게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선사는 이렇게 묻곤 했다.

"임제, 자네 아직 여기에 있는가?"

그러면 제자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스승

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나는 언젠가 이런 대답이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아니, 존재계만 있을 뿐 임제는 없네.'"

인간은 의식이 도달 할 수 있는 궁극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어두운 길목을 배회하는 나그네이다. 임제 선사는 바로 이러한 점에 철저한 자기점검이 따랐던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철저하게 무관심해야 한다.

사무람심 가운데 사가 있다. '버릴 사(捨)라는 말은 말처럼 쉽지 않다. 범어로 'upeksha'라고 하는데 '간과하다'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사념과 사념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면서 사념에 전제하던 모든 에너지가 차단돼 결국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마음에

임제 선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임제, 자네 아직 여기에 있는가"

묻고 또 묻은 까닭은

철저한 무심·자기점검 까닭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든 말이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에머슨(Emerson)에게 물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거의 삼백육십 살쯤 되었지요." 남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에머슨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믿어 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의아했다.

"믿을 수 없네요. 당신은 겨우 육십 살 정도로 보이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육십 년을 살았습니니다. 당신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나의 육십 년은 남들의 삼백육십년 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나는 여섯 배나 더 강한 삶을 살아온 셈입니다."

x축이 수평이고 y축이 수직이라면 수평선상에서는 관능과 온갖 욕심과 시기 질투를 여러 장수마냥 고되게 지고 가는 것이고, 수직선상은 진리에 대한 탐구와 삶에 대한 탐구로 가득한 것이다. 수직선상에서는 숫자로 나이를 세지 않고 경험으로 나이를 센다. 경험이란 신성한 체험을 말한다. 신성한 체험은 미움이 전혀 없는 순수함 자체이다. 후화산이 활화산이 되어 용암이 솟구치는 그런 현상, 그것은 경이로운 깨달음의 세계의 현상이다.

특허등록 (30-0607637)

法性圖所持者成就一切萬法消滅一切諸障礙

법성도는 心지요체 정법입니다. 혹 方便으로 사용하고있는 符籍보다는 천만배 이상 靈驗과 隨乘한 공덕이 있습니다. 회화나무 꽃으로 수제품 딱종이에 염색한 槐黃紙에 鏡面朱砂로만 특수 제작하여 불자님들께 護身 (휴대)용으로 엄가普及합니다.

海印及十波羅密圖

호신용 액자용 부처님 점안 복장용 윤달 예수제용 등 주문제작합니다 槐黃紙 원지 판매합니다.

법성원 : 051) 532-1113 / 010-8258-9963 홈페이지 : www.bswon.com
은행계좌.837026-56-062884 농협 이상경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에서도 구입가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가법고 설치 용이

원터치 고리용

(인등) 소원성취 및 사리함

고주구 12V (법당용) 방수구 24V (외곽용)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 ▶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 ▶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 ▶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곁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당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